

## 개인 성향에 의존하는 감성

### Human sensibility depending on the personality

김원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뇌인지융합기술연구단

#### ABSTRACT

개인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러 자료를 추적해보면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간은 다른 개체와 마찬가지로 종족유지 본능이 가장 우선하며 생활경험을 통하여 그 종족유지의 극대화를 위하여 그 구성요소로서의 유전인자들이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생체는 무엇이 우리의 종족유지를 위한 환경인지 경험을 통하여 터득하게 되고 새로운 내적, 외적 환경자극에 무의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대처하며, 감성이란 이러한 대처 양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생애초기특정기간(critical period)의 경험, 감성유발 직전의 기분상태 등이 어떻게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Keyword: 감성, 개인성향, 행동활성화/행동억제체계, 생애초기특정기간(critical period), 기분*

#### 1. 서론

인간은 다른 개체와 마찬가지로 그 종족유지의 본능이 가장 우선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동물세계에서는 어미가 부화된 새끼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단일 개체의 생명보다는 그 개체의 종족유지 본능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내적, 외적 환경자극변화에 그 종족의 유지를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며, 그 정신적 반응 양상의 중요한 하나가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의 타고난 특성과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포함하는 생활경험은 각 개인이 서로 다를 것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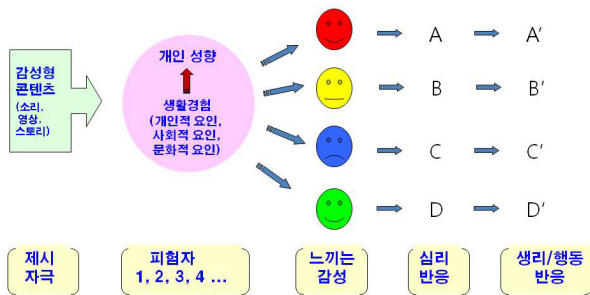
새로운 내적, 외적 환경자극에 반응하는 감성도 각 개인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감성에 영향을 주는 시간에 의존하는 정신적 특성으로서의 개인성향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에 크게 의존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적, 강도(크기)적으로 변화하며,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시간적으로는 생애 초기 특정기간과 현재의 감성유발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기분상태가 가장 클 것이며, 강도적으로는 어떤 인상적인 동기발생이 가장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각 개인별로 서로 다를 수 있는 개인성향을 어떻게 군집화할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개인성향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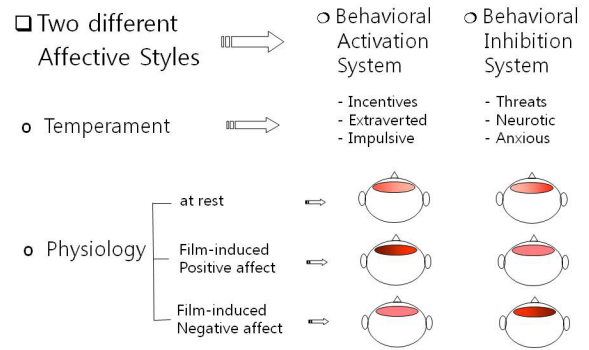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의 성향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남, 녀), 연령대별(유아세대, 청소년세대, 중장년세대, 고령인세대), 교육정도(고졸이하, 대졸이하, 석사, 박사), 건강정도(정상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생활습관병<고혈압/당뇨/비만 등> 등 각각의 환자), 심리상태(기분 좋음, 보통, 기분 나쁨, 등),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관계(만형, 막내, 부모 유/무 등), 정치(여당, 야당 등), 지역(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경제(극빈자, 저 소득자, 고 소득자 등), 자연환경(바닷가, 산골, 도심지대 등), 문화적 요인으로는 전통(집안 대대로 계통을 받아 전해 내려오는 관습 등), 풍습(그 시대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생활습관 등), 종교(불교, 기독교 등), 인종(황인종, 트기 등), 생활문화(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에서 어떤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 등) 등이 있다[그림 1].

한편, Gray[1]는 개인의 행동과 정서에 기초가 되는 두 가지 동기체계로서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와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를 제안하였다.



[그림 1] 개인성향에 의존하는 감성



[그림 2] 두 가지 감성스타일 -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

Sutton 과 Davidson 은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 PFC)의 비대칭성에 대한 전기생리적 측정을 통하여, Carver 와 White 에 의해 Gray 의 행동억제와 행동활성화 개념을 반영시켜 고안된 자기-보고(self-report) 평가 점수를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기저선 상태에서 좌측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된 사람은 긍정적 감성유발 장면에서 더욱 긍정적 감성을 보인 반면, 우측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된 사람에서는 부정적 감성유발 장면에서 더욱 부정적 감성이 나타났다[그림 2].

또한, 인간은 생애초기특정기간(critical period) 동안의 경험이 나중에 경험하여 인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지구환경의 영향에 의존하여 특징 되어 가는 풍토색에 인간의 기질은 의존한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감성형 콘텐츠에 대하여도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요인, BAS/BIS 민감성 정도, critical period 동안의 경험, 감성유발 직전의 기분상태 등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성향 및 기분상태 등을 고려한 감성측정 및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 참고문헌

[1] J.A. Gray,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Vol. 4, pp. 269-288(1990)